

말귀 ‘착착’ 내부청소 ‘척척’... 무풍의 ‘폭풍 진화’

(에어컨·공기청정기)

삼성 무풍에어컨·공기청정기 공개

미사용팬 냉방세척 등 알아서 청소 전면패널 분리 간편해 세척도 수월

벽걸이에도 무풍냉방·빅스비 탑재 집 근처 오면 IoT기술로 자동 작동 공기청정기 출고가 70만원 부터

삼성전자 무풍 에어컨이 똑똑하게 돌아왔다. 효율을 더 높이고 청소도 간편케 해 다시 한번 ‘무풍’ 붐을 노린다.

삼성전자는 15일 서울 우면동 삼성전자 서울 R&D 캠퍼스에서 2020년형 무풍 에어컨과 공기청정기 무풍 큐브를 공개했다. 무풍 큐브는 15일, 에어컨은 17일 각각 출시 예정이다.

가장 큰 변화는 벽걸이 제품에 있다. 와이드 무풍 냉방을 벽걸이로 확대 적용하면서 패널을 11% 더 넓혔고, 팬 크기도 12% 늘려 더 빠르게 냉각할 수 있게 했다.

인공지능(AI)인 빅스비를 처음 탑재해 음성인식 기능도 쓸 수 있다. 직접 조작하지 않아도 멀리서 음성만으로 에어컨을 사용할 수 있게됐다. 제품 버튼도 전원과 모드 2개만 남겨놨다.

제품간 음성 인식 중복 현상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멀티 디바이스 웨이



15일 서울 우면동에 위치한 삼성전자 서울 R&D 캠퍼스에서 모델이 2020년형 무풍에어컨과 공기청정기 무풍큐브를 소개하고 있다. /뉴스시스

크업 기술을 이용해 가장 가까운 기기만 명령을 받게 했기 때문이다.

스마트싱스를 활용해 IoT 기능도 극대화됐다.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작동패턴을 입력하면 개인별로 작동 환경을 설정할 수 있다. 예컨대 집 근처에 오면 자동으로 에어컨을 작동하는 식이다. 필터 상태를 진단해 직접 주문까지 해결 수도 있다.

벽걸이를 포함한 제품에는 대기질 측정 기능도 포함됐다. 앱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든 실내 상태를 확인 가능하다. 벽걸이 제품은 화면을 더 키웠을 뿐 아

니라, 색깔별로 공기질을 표현해주는 오로라 디스플레이도 함께 탑재해 멀리서도 쉽게 상태를 볼 수 있게 했다.

신형 에어컨은 늘 깨끗하게 제품을 사용하려는 소비자 마음도 읽어냈다. 늘 깨끗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한 ‘이지케어’를 통해서다. 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자동 청소 기능을 작동하고, 내부를 차갑게 냉각해 곰팡이나 이물질을 제거하는 냉방 세척도 작동 가능하다.

이지 오픈 패널도 신형 에어컨의 특징이다. 전면 패널을 간편하게 분리할

수 있게 해 서비스 센터 도움을 받지 않아도 필터뿐 아니라 내부 팬 블레이드까지 직접 청소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공기청정 기능도 더 강력해졌다. 필터만으로 99.999% 집진 효율을 구현해냈으며, 수명이 2배로 늘었다. 특히 삼성전자는 가장 정화하기 어려운 0.3마이크로미터 입자 미세먼지를 걸러낼 수 있도록 했다고 성능을 자신했다. 일부 필터는 물 세척도 가능케 했다.

냉각 성능은 전작보다 크게 향상되지는 않았지만, 대신 효율성을 극대화했다는 게 관계자 설명이다. 대폭 까다로

워진 에너지 효율 등급에서 1등급을 달성했으며, 모션 인식을 통해 공간에 사람이 없으면 바로 절전모드로 변경해줄 수도 있다.

디자인 역시 지난해 출시한 갤러리 스타일을 이어가면서도, 제품 하단부 아트패널을 업그레이드 하고, 새로운 해링본 패턴 등 9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했다.

홈 멀티 모델도 확대했다. 실외기 한대에 스탠드형 1대와 벽걸이형을 최대 2대까지 연결할 수 있는 기능이다. 최근 들어 방마다 에어컨을 설치하는 가구가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 삼성전자는 멀티 기능을 더욱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공기청정기 큐브도 마찬가지로 전략이다. 스탠드형 에어컨이 기능적으로는 오히려 공기청정기를 능가하기도 하지만, 방마다 따로 공기청정기를 장착하려는 수요도 여전히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그밖에 무풍에어컨 갤러리는 서큘레이터 급속냉방과 3중 필터시스템, 대용량 미세청정 등 종전 기능 역시 그대로 이어받았다.

가격은 무풍에어컨 갤러리가 출고가 기준 345만~720만원, 벽걸이 와이드는 98만~201만원이다. 무풍 큐브는 70만~210만원으로 책정됐다. 17일부터 ‘2020년 무풍에어컨 런칭 페스티벌’을 통해 최대 30만원을 할인해준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SKT, MS와 초협력... “게임 활성화”

국내 첫 엑스박스 개발자 행사

SK텔레콤과 마이크로소프트(MS)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엑스박스(Xbox)개발자 행사를 개최하고, 양사간 ‘초(超)협력’을 확대한다.

SK텔레콤은 15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본사에서 열린 엑스박스 개발자 행사를 후원하고, 게임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게임 사업 제휴 모델 및 계획 등을 설명했다고 같은 날 밝혔다.

이번 양사간 엑스박스 개발자 행사 협력은 지난해 10월 엑스박스 게임을 스트리밍으로 서비스하는 ‘프로젝트 엑스클라우드’ 시범 서비스에 이어 게임 개발 등으로 협력 분야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프로젝트 엑스클라우드의 한국 내 독점 사업 운영 파트너인 SK텔레콤은 이번 행사에 전진수 5GX서비스사업본부장(클라우드게임사업 담당 겸임)이 참여해 국내 게임 개발자들에게 게임 분야 사업 계획 등을 설명했다. 엑스클라우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콘솔(가정용 게임기) 엑스박스의 고화질·대용량 게임을 스마트폰에서 다운로드·설치 없이 즐길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이다. 양사는 지난 10월부터 SK텔레콤의 5G·LTE 고객 체험단에 엑스클라우드를 시범 서비스 중이다.

전진수 사업담당은 “향후 게임 개발을 위해 양사간 공동 투자를 확대

하고, 게임 개발사 지원을 위한 다양한 마케팅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엑스박스 개발자 행사는 엑스박스 게임 개발자는 물론 게임산업 관계자들을 위한 세미나로, 마이크로소프트가 국내에서 개최한 첫 엑스박스 개발자 행사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날 ▲독립 비디오 게임 개발자들이 스스로 윈도우와 엑스박스에서 구동되는 게임을 퍼블리싱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ID@엑스박스’ 프로그램 ▲엑스박스 구독 서비스인 ‘게임 패스’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 ‘믹스’ ▲엑스박스 개발과정 등을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는 마이크로소프트 본사에서 엑스박스 게임 콘텐츠 제휴담당인 아그네스 김, 인디 개발자들을 위한 ID@엑스박스를 담당하는 아고스티노 시모네타, 글렌 그레고리 등이 참석했다. 또 국내 대형 게임사 관계자와 독립 게임 개발자들 100여명 이상이 참가했다.

SK텔레콤 전진수 클라우드 게임 사업담당은 “마이크로소프트는 엑스박스를 통해 더 많은 한국 게임을 선보일 것이며 ‘엑스박스 디스커버리 데이’가 그 시작”이라며 “SK텔레콤은 마이크로소프트와 ‘프로젝트 엑스클라우드’를 넘어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협업을 한국 게이머들에게 지금까지 없었던 게임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

LG전자, MIT 교수와 ‘미래 로봇’ 만든다

로봇 공학자 김상배 교수와 공동개발 인프라 풍부한 보스턴에 거점 마련

LG전자는 차세대 로봇기술 개발을 위해 메사추세츠공대(MIT) 김상배 교수와 손을 잡았다고 15일 밝혔다.

김 교수는 2006년 도마뱀처럼 벽을 타고 오르는 스티키봇을 발명해 세계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시사주간지 타임이 뽑은 최고의 발명품에도 선정됐다. 2012년부터는 MIT 생체모방 로봇연구소를 주도하며 4족 보행 로봇 ‘치타’를 선보이고 있다.

LG전자와 김상배 교수는 지난해 말 연구과제 선정을 마치고 이달부터 본격적인 협업을 시작했다. 김 교수가 LG전자 CTO 산하 로봇선행연구소에서 참여하는 방식이다.

LG전자는 MIT 생체모방 로봇연구



2020년 1월 14일 (왼쪽부터) LG전자 로봇선행연구소장 백승민 상무, LG전자 CTO 박일평 사장, MIT 김상배 교수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LG전자

소 연구 인력과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로봇의 손이나 팔을 이용해 물체를 집거나 옮기는 물체조작 기술을 연구해 차세대 로봇 기술을 선점한다는 계획이다.

LG전자는 감성인식과 내비게이션 기술에 강점을 갖고 있어 4족 보행과 물

체조작 기술 분야의 권위자인 김상배 교수와 협업으로 상당한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LG전자는 미국 보스턴에 ‘LG 보스턴 로보틱스 랩’을 설립한다. 보스턴은 로봇 관련 기업과 스타트업이 몰려있어 활발하고 빠르게 기술을 연구하고 로봇 산업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지역으로 평가된다.

LG전자는 로봇 인프라가 풍부한 보스턴에 거점을 확보함으로써 미래 로봇기술을 확보함과 동시에, 김 교수와 공동 연구를 더욱 긴밀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LG전자 CTO 박일평 사장은 “세계적인 로봇공학자 김상배 교수와의 공동 연구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고 보스턴에 로봇 연구거점을 마련함으로써 미래 성장동력인 로봇사업의 기술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포스코드림캠프’ 1기 겨울캠프 수료

포스코청암재단

포스코청암재단은 포항, 광양지역 중학교 2학년 학생 6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포스코드림캠프 1기 ‘겨울캠프’ 일정을 마무리하고 송도 포스코인재창조원에서 수료식을 열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수료식에는 참가 중학생과 대학생 멘토 80여명이 참석했다. 김선욱 포

스코청암재단 이사장, 포항교육지원청의 남홍식 교육장과 전우선 장학사, 광양교육지원청의 오수진 장학사, 광양제철중학교 김형기 교장이 자리를 함께해 수료생들을 축하해 주었다.

포스코 경영이념인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의 실천 일환으로 작년 8월 처음 시작한 포스코드림캠프는 방학기간 중 포항, 광양지역의 중학생

에게 영어와 수학 등 주요과목에 대한 학습을 지원하고 멘토인 대학생에게는 일자리와 장학금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김선욱 포스코청암재단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포스코드림캠프가 이제 첫발을 내디뎠지만 앞으로 연륜을 쌓아가면서 이번 캠프에서 도움을 받은 중학생들이 대학생이 돼 배움의 강사로 다시 참여하는 ‘나눔의 선순환’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성문 기자 ysw@